

# 미디어제국주의론의 두가지 구성개념에 대하여

朱 東 晁

(서울대 新聞學科 助教)

## 목 차

- |                   |                                |
|-------------------|--------------------------------|
| I. 서론             | 2. 유통과정                        |
| II. 미디어제국주의       | 3. 상부구조                        |
| 1. 제국주의           | IV. 종속과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br>(ISA) |
| 2. 다국적기업          | 1. 종속                          |
| 3. 기존의 미디어제국주의개념  | 2.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                 |
| III. 국제커뮤니케이션의 구조 | V. 결론                          |
| 1. 하부구조           |                                |

## I. 서론

커뮤니케이션의 영역에서 제국주의적 중심국과 주변국가간의 관계는 특히 지난 1970년대에 들어서부터 제 3세계국가들의 주요한 관심을 형성하여 왔다. 이러한 관심은 제 3세계의 만성적인 저발전상태에 의해 제기되는 경험적 사례들을 바탕으로 강하게 자극된 것이다. 이 새로운 논의영역에 대하여 현대 자본주의적 세계체제의 차원에서 국제커뮤니케이션의 구조는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이 국제적 관계속에서 기존 매스 미디어를 포함한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은 주변국가의 커뮤니케이션체제와 국민들에게 어떠한 기능 및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가 등의 이론적 문제는 국제커뮤니케이션연구의 폭과 깊이를 확대시켜 왔다. 이에 따라 기존의 커뮤니케이션이론을 주도하여 왔던 소위 '근대화확산모델' (Diffusion Model)은, 이제 새롭게 '문화제국주의' (Cultural Imperialism) 또는 '미디어제국주의' (Media Imperialism) 등의 개념하에서 재평가되고 있는 현 국제커뮤니케이션구조의 구체적인 현실에 의하여 하나의 신화로 전락하였다고 하겠다.

비록 이 새로운 개념들에 대한 완전한 동의와 평가는 없지만, 그리고 이것이 현 국제커뮤니케이션구조의 현황을 설명할 수 있는 분석도구로서는 아직 모호하며 정교성이 부족한 개념이겠지만, 이러한 관점이 등장하게 된 것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국내·국제적 차원에서 경제·정치·문화적 상황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총체적인 설명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미디어제국주의 혹은 문화제국주의의 논의는 현 국제커뮤니케이션구조를 지배하고 있는 세계상황을 소수특정 선진자본주의국가에 의한 제국주의

단계로 규정짓고, 다국적 기업에 의한 국제커뮤니케이션 질서의 재편성과 이에 따른 문화적·이데올로기적 지배를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커뮤니케이션연구에 있어서 이 개념은 현 국제커뮤니케이션구조가 지배와 종속의 세계체제를 반영하고 있으며, 또 이것을 산출하고 유지·확장시키고 있는 과정을 지칭하는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개념으로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제 3세계국가들에 의한 신국제정보질서운동(New World Information Order)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그 논리는 이 미디어제국주의개념의 현실성을 확인시키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 근거하여 이 글은 미디어제국주의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현 국제커뮤니케이션구조 및 그 현황에 대한 연구들의 핵심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다국적기업을 통한 선진자본주의의 팽창—제국주의—이 현 국제커뮤니케이션의 하부구조를 형성하여 모든 국가의 커뮤니케이션산업을 세계시장으로 편입하였음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한다. 그리고 이렇게 구조화된 세계체제가 소위 종속구조를 이루며, 커뮤니케이션관련산업의 생산물이 이 구조속에서 유통상의 양적 불균형상을 반영하고, 나아가 이 생산물이 단순히 유통되는 문화적 상품으로서 머무르지 않고, 다국적기업을 통한 자본주의적 가치전파라는 문화적·이데올로기적 지배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국제커뮤니케이션연구들은 대체로 공유하고 있는 두가지 개념으로서 종속관계와 그리고 매스미디어의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포괄한다. 즉, 이 두가지 구성개념들은 종속의 특수한 표현으로서 문화종속, 문화 및 이데올로기의 종속구조 유지 및 강화기능이라는 방식으로 상호 규정하면서 미디어제국주의론의 모델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문화 및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종속이론적 접근이 세계체제적 시각하에서 많은 국제커뮤니케이션현황의 실증적 자료를 보여 주고 있지만, 앞으로의 연구는 다국적기업의 지배적 이데올로기전파가 주변사회의 구체적인 사회구성의 과정속에서 역동적인 계급구조의 변화에 따라 상이하게 수용·재생산된다는 사실에 주목하여야 한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 II. 미디어제국주의

현 국제커뮤니케이션구조에 대한 제국주의적 지배현상을 지칭하는 용어로 미디어제국주의, 문화제국주의, 커뮤니케이션제국주의, 텔레비전제국주의, 전자제국주의, 문화종속등이 사용되고 있다.<sup>1)</sup> 여기서 이 여러 개념들의 특징적인 차이를 추상성과 구체성의 수준에서 포괄할 수 있는 개념으로 '미디어제국주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여러 개념들에 대한 검토 이전에 우선 제국주의와 그 대리인으로서 다국적기업을 기술하고자 한다.

1) 채백, "미디어제국주의론에 관한 일고찰"(서울대 대학원 석사논문, 1983), p. 8.

## 1. 제국주의

마르크스주의적 전통은 제국주의가 유발되는 자본주의사회의 기본적 경제법칙에 대한 분석을 제공해 주고 있다.

우선 마르크스의 자본축적이론은 국민경제의 범주내에서 자본과 노동의 관계(또는 생산관계)에 기초한 자본주의적 생산 및 (확대)재생산과정을 포괄하면서 자본주의경제의 대외적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적 기반이 되고 있다. 즉 직접생산자에 대한 착취에서 발생한 축적(accumulation)의 기초(잉여가치)는 자본가들간의 경쟁과 기술변화를 통하여 축적의 규모를 확대하는 내재적 발전을 거친다는 것이다.<sup>2)</sup> 그리고 마르크스는 ‘발전’과 ‘저발전’의 개념을 각각 상이한 생산양식—자본주의적 생산양식과 전(前)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속에서 일어나는 개별적인 현상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그는 산업자본의 단계에서 서구자본주의의 팽창이 후진국의 자본주의적 산업화과정을 초래하는 ‘발전적’(progressive)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여겼다.<sup>3)</sup>

레닌은 이 축적이론을 계승하여, 제국주의란 독점자본의 단계에서 세계적 규모로 일어나는 자본주의적 축적과정이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그에 따르면 자본주의의 최고단계인 제국주의의 특징인 자본수출(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국제화)은 자본이 이동되는 경계로서 정치적 영토의 개념을 포괄시키며, 결국 이 자본수출은 ‘국가’(state)로 대변되는 지배계급들간에 세계분할을 일으키는 ‘국가독점자본주의적 트러스트’간의 군사적·정치적 경쟁형태를 띠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제국주의이론은 지배계급들간의 투쟁이라는 맥락에서의 자본축적이론으로 정의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이론에서 파생되는 것으로 (1) 선진자본주의국가들의 지배계급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협력에 대한 분석, (2) 선진자본주의국가들의 지배계급과 저발전국가들의 지배계급들사이의 갈등과 협력, (3) 지배계급과 피지배민중과의 갈등에 대한 분석이 지적된다.<sup>4)</sup> 그리고 레닌은 제국주의의 자본수출이 저발전지역의 발전을 가속화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하였다. 이러한 점들에 있어서 N. 부하린은 같은 입장을 따르지만, 이와 반대로 K. 카우츠키는 제국주의를 선진자본주의국가와 저발전국가(농업지역)와의 관계로 규정하며, 이 제국주의 단계에서 선진자본주의국가사이의 갈등은 사라진다고 주장하였다.<sup>5)</sup> K. 카우츠키의 이러한 입장은 현대 종속이론의 주요 요점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하겠다.

2) John Weeks, “유물론과 종속이론의 차이점,” 종속이론과 경통마르크스주의, (R.H. Chilcote편, 영흥철 역; 한울, 1984), p. 195.

3) A. Brewer(영흥철 역), 제국주의와 신제국주의, (사계절, 1984) pp. 41-78.

4) J. Weeks, 앞의 논문, p. 196.

5) T. Bottomore (ed.), *A Dictionary of Marxist Thought*, (Blackwell, 1983), pp. 223-227.

## 2. 다국적기업(Multinational Corporation)

다국적기업은 2개국 이상에서 활동하는 자본주의적 기업으로서 현지(local)노동시장의 값싼 임금등에 의한 생산비의 최소화로써 자본축적을 꾀하는 거대독점기업이다. 그리고 다국적기업의 출현과 의의는 생산 및 자본의 국제화와 관련된 세계적 규모의 자본집적과 집중과정의 부분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다국적기업이 출현함으로써 특정 국가의 국민적 자본(national capital)이 국민경제와는 더이상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중심부 자본'으로의 현상을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본이 국적을 지니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자본은 특정 자본주의국가내에 명확한 기반을 갖고 있다. 다국적기업의 모회사는 그 법적 거주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경우 그 최고 경영진은 그 국가내에서 충원되고 자본과 생산의 대부분은 여전히 모국에 위치하고 있다.<sup>6)</sup>

요컨대 자본(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수출은 해외에 자회사를 설립하는 기업이나 금융그룹의 직접투자등에 의하여 세계적 규모로 이루어지므로, 복합기업(conglomerates)이나 금융자본의 출현은 다국적기업의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이다. 이러한 형태의 자본수출은 주변사회에 있어서 생산시설의 모방구조를 낳거나, 나아가 상품생산을 위하여 저렴한 노동을 착취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커뮤니케이션분야와 관련되어 여기서 우선 지적되어야 할 점은 다국적기업에 의한 국제적 기술이전(transfer of technology)의 문제이다. 이는 다국적기업이 직접투자(전략투자, 혹은 합작투자)와 간접투자(기술도입계약에 의한 특허, 자본재의 수입)의 형식으로 저발전국가에 대한 기술종속현상을 야기시켰다는 것이다. 특히 제 2차세계대전 이후 저발전국가의 수입대체공업화정책은 선진국으로부터의 자본·기술의 도입을 촉진시켜 국내과학기술의 모방적·비생산적 성격을 낳았다.<sup>7)</sup> 나아가 이러한 사실은 정보관련산업과 뉴미디어산업이 강조되고 있는 현재 국제커뮤니케이션구조에 있어서 다국적기업의 기술독점이 저발전국가들의 종속현상을 한층 심화시킬 수 있음을 밝혀줄 것이다.

커뮤니케이션의 국제적 흐름에 있어서도 이제 다국적기업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T. Varis는 전기통신과 커뮤니케이션관련산업의 하부구조의 발전이 현대 다국적기업의 생성에 본질적인 요소가 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sup>8)</sup> 그리고 그는 커뮤니케이션분야에서 다국적기업의 활동이 생산시설과 산업설비에 대한 소유통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케팅과 배급활동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1) 외국의 미디어산업(출판사나 방송국)의 소유와 통제

6) A. Brewer, 앞의 책, pp. 312-324.

7) 김환석, "제 3 세계의 기술종속과 한국의 상황," 한국사회연구 I, (한길사, 1983. 6), pp. 305-312.

8) T. Varis, "다국적 기업의 커뮤니케이션 지배," 커뮤니케이션과 이데올로기, (이성회 편, 한길사, 1984), p. 321.

(2) 외국의 마케팅네트워크(배급제도와 배급업체등등)의 소유와 통제

(3) 미디어산물의 해외판매에 대한 통제(이것은 세계시장에서의 지배적 형태)<sup>9)</sup>

사실 기존 매스미디어산업에 대한 다국적기업의 침투에 대한 사례는 놀랄만한 실증적인 통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만화·레코드등의 오락 및 문화산업과 정보 및 통신산업에 있어서도 그 모든 예를 다 들 수 없을 정도로 다국적기업의 독점지배체제는 충분히 짐작될 수 있다.

그리고 미디어제국주의론에서는 다국적기업이 이윤추구라는 경제적 목표외에, 이 목표달성을 위하여 매스미디어 및 커뮤니케이션을 이용하여 문화적·이데올로기적 지배를 행사한다는 점에 보다 강조점을 두고 있다.

### 3. 기존의 미디어제국주의 개념

미디어제국주의는 이처럼 다국적기업이 자본주의세계체제속에서 행하는 제국주의적 지배의 한 특수형태로서, 선진자본주의국가로부터 주변국가의 시장으로 전달되는 일정 미디어산물들이 서구자본주의의 문화적 가치 및 이념에 입각한 특정한 특성의 수요와 소비를 창출하는 과정까지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이는 주변국가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문화가 겪게 되는 문화적, 이데올로기적 피지배성이라는 측면도 역시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일찌기 P. Golding은 문화제국주의를 “선진사회와 저개발사회의 종속이라는 구조적 관계의 규범적 요소”라고 파악하고, 이에 는 교육과 문화제도 및 국제적인 미디어의 영향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에 따르면 저개발국의 미디어는 사회발전의 일정단계에 자생적으로 출현한 것이 아니라, 선진자본주의국가로부터 이식된 것이며, 또 이 매스미디어를 비롯한 테크놀로지와 더불어 전이되는 이데올로기들은 문화적 종속이라는 프괄적인 흐름의 한 부분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sup>10)</sup> 따라서 그는 기술이전=이데올로기전파(문화종속)이라는 도식속에서 “언론인의 직업의식”이 저개발국에게 이식 또는 주입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H.I. Schiller는 “문화제국주의”를 “한 사회가 현대 세계체제속으로 편입되는 총체적 과정으로서 그 사회의 지배계층이 그들의 사회제도를 세계체제의 지배적 중심부의 가치와 구조에 부합되고, 또 이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형성하도록 유인되고, 억압되며, 강요되고 때로는 매수되기까지도 하는 과정”<sup>11)</sup>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그에 따르면 현대의 문화제국주의는 이미 100여년전부터 존재하였던 세계적 지배구조—식민주의—가 중심국의 재정

9) 같은 논문, p. 323-324.

10) P. Golding, “제 3 세계의 언론인의 직업의식,” 이상희 편, 앞의 책, pp. 349-350.

11) H.I. Schiller, *Communication and Cultural Domination*, (Shape, 1976), p. 9.

비, 피착취대상의 변화, 현대적 조직 및 통제양식에 의하여 변형되어 나타난 것일 뿐이다.

다른 한편에 있어서 ‘미디어제국주의’라는 개념은 미디어의 구체적인 역할을 강조하기 위하여 자주 사용되고 있다. O. Boyd-Barrett는 이 개념을 제시한 바 있는데, 그는 이를 “한 국가의 미디어의 소유권이나 구조, 보급 및 내용중의 어느 하나 이상의 측면이 하나 혹은 여럿의 다른 나라 미디어의 이해관계에 의하여 상응하는 영향력의 상호교환 없이 상당한 압력에 종속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이 개념이 문화제국주의보다는 현상영역을 더욱 구체적으로 지칭하는 하위개념으로서 공식적인 교육제도를 제외하고는 문화제국주의에 있어서 아마도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평가한다.<sup>12)</sup> 그리고 그는 이러한 국제적인 미디어활동(미디어제국주의)이 미디어교류의 일방적 성격(양적, 질적 차원에서)과 소수국가에 의한 미디어영향력의 독점이라는 두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을 국가간의 “힘의 불균형”의 필연적이거나 개연성이 높은 결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다시 영향력의 발생 혹은 영향력의 수용이라는 두가지 과정에서 개재되는 의도성의 정도에 따라 네가지 유형의 영향력—즉 “정치적·산업적 전략의 일환”에 따라 영향력을 창출하거나, 혹은 이 영향력을 수용하는 두 유형들, 그리고 “비의도적인 단순한 영향력의 전파”, 혹은 “자연스러운 접촉의 결과에 의한 영향력의 흡수”라는 두 유형들—을 제시하고 있다.<sup>13)</sup>

이러한 보이드 바레트의 논의에 대하여 R. Salinas와 L. Paldán은 미디어영향력의 흐름이 한 국가의 미디어제도와 다른 국가의 미디어제도사이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으며, 또한 미디어영향력의 유형들이 국가간의 힘의 불균형에 기인한다고 하면서도 의도성의 차원에 따라 분류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 개념정의를 형식주의적이라고 비판한다.<sup>14)</sup> 즉 그들은 연구의 외연을 설정하는 것보다 포괄적인 결정인(決定因)—총체성과 지배—에 대한 언급이 보다 필요함을 강조한다. O. Boyd-Barrett도 스스로 지적하고 있듯이 미디어제국주의에 대한 연구는 자본주의자체의 변천에 따른 자본주의와 제국주의간의 관계변화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또한 미디어물의 수출이 미디어산업에 대하여 갖는 구조적·경제적 필연성—P. Baran과 P.M. Sweezy의 잉여추출(surplus extraction)—은 미디어제국주의론에 대한 새로운 보충적인 관점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하겠다.<sup>15)</sup>

그리고 J. Galtung은 중심국과 주변국간의 교환형태에 따라 제국주의를 다섯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중 커뮤니케이션제국주의와 문화제국주의를 가장 현대적인 제국주의 형태, 미래의 제국주의의 기본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는 현대 전세계의 커뮤니케이션 및 교통패턴을 커뮤니케이션제국주의의 전형으로 여기며, 특히 국제통신사들을 모두 중심국의

12) O. Boyd-Barrett, “미디어제국주의의 성격과 상황,” 이상희 편, 앞의 책, pp.294-295.

13) 같은 논문, p.295.

14) R. Salinas and L. Paldán, “중속사회의 과정과 종속문화,” 이상희 편, 앞의 책, p.274.

15) O. Boyd-Barrett, 앞의 논문 p.311.

수중에 장악되어 현 국제커뮤니케이션질서를 지배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sup>16)</sup> 그의 제국주의론의 특징은 종속관계에 대한 강조이며, 그리고 그는 제국주의의 유형이 '식민주의—신식민주의—신신식민주의(neo-neo-colonialism)'로 변형되어 가는 데에 커뮤니케이션수단의 발전이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였다. 이런 점에서 J. Galtung의 커뮤니케이션제국주의와 문화제국주의는 각각 기술적 측면과 문화적 측면의 제국주의현상을 지칭하고 있다고 하겠다.

### Ⅲ. 국제커뮤니케이션의 구조

국제커뮤니케이션질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소위 NWIO운동에 의해서 전개된 논리에 의하여 가장 명확하게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NWIO운동은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free flow)에 대한 논쟁으로서 선후진국간의 뉴스 및 정보의 교류에 있어서 공정하고(equitable), 정당한(just) 내용과 양적·질적인 차원의 균형을 요구하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현존 국제뉴스 및 정보의 교류는 구미 4대통신사와 다국적기업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으며, 선진국의 경제적·정치적 및 문화적 이익을 신장하고 종속관계를 예속화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쓰이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뉴스의 흐름은 양적인 면에서는 주로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흐르는 일방적인 것이며,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도 후진국의 뉴스는 선진국독자의 취향에만 영합되는 전쟁, 천재지변, 정변, 폭동등 비정상적인 사건들에만 주로 국한하고 있을 뿐, 후진국의 문화와 발전상 또는 후진국의 시각에 입각한 뉴스는 거의 전무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NWIO운동은 서구의 매체를 서구자본주의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그들의 문화 및 상품을 강대하기 위한 문화적 제국주의수단으로, 또 신식민주의에 입각한 경제적 착취의 영속화를 위한 수단으로 파악하고 이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현존하는 선진국 매체 및 통신사의 독점형태의 국제커뮤니케이션질서의 구조적 개편을 통하여 후진국 뉴스와 문화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고 자유로우면서도 균형된 흐름(free and balanced flow)이 보장될 수 있는 쌍방커뮤니케이션(two-way communication)체제의 정립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국내적 측면에서는 선진국의 문화적 지배를 불식하고 '탈식민'을 통하여 자국의 정보체계 및 정치·경제체계등의 결정에 관한 독자적인 결정권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럴 경우에만 문화적 침략으로부터의 문화적 주체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것이다.<sup>17)</sup>

16) J. Galtung "A Structural Theory of Imperialism," in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3, No. 2 (1971).

17) 추광영, "커뮤니케이션트렌드와 제3세계의 논리," 성곡논총 제13집(1982), pp. 448-450.

이상을 요약한다면 제 3 세계는 다국적기업의 국제커뮤니케이션산업의 독점지배, 중속구조에 따른 정보 및 문화산물의 유통불균형, 그리고 문화적·이데올로기적 침략을 지적하고 있다. 이 세가지 측면은 현존 국제커뮤니케이션설서를 형성하고 있는 하부구조, 유통과정, 그리고 상부구조라는 표현으로 구분될 수 있는 전체 메카니즘인 것이다.

이 국제커뮤니케이션구조의 메카니즘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기존 매스미디어에 국한되지 않고, 오락 및 문화산업과 정보 및 통신산업에까지 행해져 왔다. 여기서는 이러한 많은 사례중에서 특징적인 몇가지를 통하여 국제커뮤니케이션 구조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하부구조

국제커뮤니케이션구조에 있어서 그 하부구조를 형성하는 주요 대리인(agents)은 물론 다국적기업이다. A. Mattelart에 따르면 커뮤니케이션산업의 다국적기업화는 우선 국내에서 복합기업(conglomerates)의 형성에서 보이는 기업의 독점·집중화경향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한다.<sup>18)</sup>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산업의 흡수·집중화과정속에서 고도의 기술을 소유한 다국적기업은 하드웨어의 생산 및 그 장치뿐만 아니라, 그 생산물인 메시지의 내용까지 결정하기에 이른다.

미국의 영화산업에 있어서 세계영화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 8대수출업자들중 Paramount와 United Artists는 각각 Gulf & Western기업과 Transamerica Corporation의 자회사이며, 또한 근래에 20th Century Fox사는 Lehman-Lazard그룹(트러스트)의 자회사인 CBS(Columbia Broadcasting System)와 새로운 공동사업을 시작하였다는 사실은 다국적기업이 복합기업의 형태를 취하고 있음을 잘 반증해 주고 있다. 그리고 CBS와 더불어 미국상업방송국의 3두마차를 이끄는 ABC, NBC는 각각 Morgan금융트러스트와 Rockefeller그룹(트러스트)의 자회사이며, 그리고 이 Morgan 금융트러스트는 General Electric Corporation, IBM, Goodyear, Aerospace등의 자회사에, Rockefeller 그룹은 ITT, IBM, Westing House등의 자회사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sup>19)</sup> 이러한 사실은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산업이 자신의 모회사인 복합기업을 통하여 같은 계열회사의, 혹은 타복합기업의 여러 종류의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산업에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수직적·수평적으로 연결된 이러한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산업들은 매우 자본집약적인 기술적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이의 생산분문에 대한 고정비용이 타산업보다 상대적으로 월등히 높기 때문에 대규모의 재정적 지원자—금융기관—와 결합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맥락에서 선진자본주의국가내의 금융그룹이 국내·국제적 이윤율 및 통화율, 그리고 주요 거래지역에 대한 정치·경제적 상황에 대한 정보를 위하여 복합기업의 자회사로서 정보산업과 특히 텔레커뮤니케이션산업에

18) A. Mattelart, *Multinational Corporations and the Control of Culture*, (New Jersey: Humanities, 1979), pp.5-36.

19) 같은 책, p.9.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하겠다.<sup>20)</sup> 이리하여 산업—금융의 결합을 이룩한 구미독점자본은 현대에 들어서는 커뮤니케이션관련산업까지 자신의 자본하에 하부구조로 형성하였던 것이다.

나아가 국내의 이 복합기업들은 주로 공동사업, 상호주식소유, 중복감독체제등의 메카니즘을 통하여 다국가의 기업들과 상호 강하게 연관되어 초국가적인 기업형태를 형성한다. 예를 들자면 방송부문에 있어서 미국의 ABC, CBS 및 NBC는 1930년대 라디오부문부터 시작하여 라틴아메리카 및 중미, 그리고 중동지역등에 ABC Worldvision Network, Central America TV Network, Latin America Television International Network를 설립하여 각 지역 방송국에 직접투자를 하여 왔다.<sup>21)</sup> 서구의 경우 다국적기업의 경향은 특히 출판과 레코드 부문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서독의 Bertelsmann AG, 네덜란드의 VNU(Vereigde Uitgeversbedrijven), 프랑스의 Hachette, 영국의 Rank와 EMI등이 그 대표적인 다국적기업들이다.<sup>22)</sup>

이상과 같은 검토에서 다국적기업의 커뮤니케이션산업은 이윤의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자본주의적 기업형태이며, 또 이는 대외적으로 자본수출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는 제국주의의 기업적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국가 및 국제커뮤니케이션제도에 대하여 다국적기업은 그 나라의 미디어구조 및 고용조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또 값싼 생산원가를 제공해 주는 지역에 커뮤니케이션산업을 설립하여 그 최종상품을 국제적으로 유통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식민지시대의 제3세계가 거의 전무하거나 취약한 자국의 매스커뮤니케이션상황내에서 대중신문 및 방송을 어떻게 발전시켰으며, 나아가 해방직후 이 산업들이 선진자본주의국가의 다국적커뮤니케이션산업과 어떻게 다시 관련을 맺게 되었는가는 주변사회의 미디어제국주의연구의 한 부분이라고 하겠다.

## 2. 유통과정

국제커뮤니케이션흐름을 결정하는 유통체제는 중심—주변사이의 불균등한 종속구조의 한 특수형태이다. 많은 국제커뮤니케이션연구가 이 종속구조에 강조를 두면서, 정보 및 매스미디어산물이 양적으로 불균형하게 전달된다는 많은 실증적 증거를 축적하였다.

뉴스에 있어서 현재 전세계에는 100여개에 달하는 자국통신사들이 존재하지만 소위 AP, UPI, Reuters, AFP의 구미 4대통신사가 전세계 뉴스량의 90%정도를 지배하여 왔다. 특히 지역적으로 본다면 라틴아메리카의 경우는 AP와 UPI, 아프리카의 경우는 AFP에 대한

20) C.J. Hamelink, "International Finance and the Information Industry," in G. Gerbner & M. Siefert (ed.), *World Communications*, (New York; Longman, 1984), pp. 202-209.

21) A. Matterlart, *Transnationals & the Third World*, (Massachusetts; Bergin & Garvey Pub., 1983), p. 49.

22) T. Varis, 앞의 논문, pp. 333-336.

뉴스의존도가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다.<sup>23)</sup> 나아가 이 통신사의 뉴스들은 「New York Times」, 「Washington Post」, 「Le Monde」등과 같은 일간신문이나, 「Time」, 「Newsweek」등과 같은 국제적인 뉴스잡지를 통하여 재생산되고 있다.

영화의 경우에 있어서는 미국영화산업이 세계시장을 점유하는 비율은 압도적이다. 1920년대에 전세계상영시간의 3/4을 차지하였으며, 1973년에는 80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상영시간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sup>24)</sup> 이러한 독점적 지배가 제3세계 영화제작업자에게 미치는 결과는 매우 심각하다. 예를 들면 1979년 멕시코시티에서 방영된 총 435편의 영화중 154편이 미국으로부터 수입된 것이며, 나머지도 대부분 서구에서 제작된 것이다. 즉 미국영화가 35%이고, 외국영화의 비율이 85%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태국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자국의 영화산업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지 않다. 단지 특징적인 점은 서구(주로 미국)의 영화에 대하여 홍콩이나 인도에서 제작된 영화가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다.<sup>25)</sup>

미국 TV프로그램의 주요 수출업자는 MPEAA(Motion Picture Export Association of America)이다. 이를 통하여 수출되는 미국 TV프로그램을 방영하지 않는 국가는 이 지구상에 거의 없다고 한다. 1972년 K. Nordenstreng과 T. Varis의 연구<sup>26)</sup>에 따르면 프랑스와 영국의 TV프로수출이 각각 2만시간, 그리고 서독의 수출이 6천시간에 이르고 있는데, 반면에 미국의 TV프로수출은 20만시간에 가깝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러한 미국 TV프로의 영향을 주변사회의 입장에서 살펴 볼 경우, 특히 전세계 TV보유의 3%정도에 불과한 라틴아메리카에서 미국 TV프로가 총 TV프로의 약 35%에 이르고 있으며, 콰테말라같은 국가는 무려 80%에 달하고 있다.<sup>27)</sup> 그리고 이러한 불균형은 미국 TV의 체제를 도입한 국가에서의 방송운영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앞에서 설명된 중미의 CATVNC(Central America TV Network)와 남미의 LATINO(Latin America Television International Network)하에서 설립·운영되는 국가의 방송체제는 미국에의 의존도가 심하여, 공영체제가 80%에 가까운 아시아 및 아프리카지역의 라디오 및 TV방송체제에 비하여 불과 15%정도의 공영체제를 지니고 있을 뿐이다.<sup>28)</sup>

광고부문은 다국적기업의 간접투자의 한 형태인데, 세계적인 50대 광고사중 30개의 회사가 미국의 다국적기업이다. 이중 미국의 10대광고사들은 총 수입의 50.4%를 해외에서 벌어들이고 있다. 특히 McCann Erickson은 58개국으로부터 총수입의 73%를, 그리고 J. Walter Thompson은 29개국으로부터 총수입의 54%를 해외에서 올리고 있다.<sup>29)</sup> 한편 이러한

23) O. Boyd-Barrett, *The International News Agencies*, (Berkeley Hills; Sage, 1980), p. 56.

24) Thomas Guback, "Film as International Business," in *Journal of Communication*, 1974 Winter, p. 91.

25) A. Mattelart, 앞의 책(1983), pp. 41-43.

26) 같은 책, p. 47, 재인용.

27) 같은 책, p. 47.

28) 같은 책, p. 49.

광고업의 경향과 함께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이 서비스산업이다. 이 부문에 있어서도 미국의 지배는 가히 독점적이다. 예를 들어 회계기업인 Big Eight U.S.는 1978년에 해외수입이 47%에 달했으며, A.C. Nielson 같은 시장조사기구는 같은 미국의 10대조사기구의 총수입의 반에 가까운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이중 45%를 해외에서 얻고 있다. 그리고 다국적 판매촉진회사인 IMS International은 1977년 총수입의 60%를 해외에서 얻었다.<sup>29)</sup>

출판의 경우 'Blondie'같은 만화는 15개국어로 180여개의 일간지에 실리며, 매일 55개국의 1억 5천만 독자들에게 읽혀지고 있다.<sup>31)</sup> 또 이러한 방식으로 Walt Disney의 출판물이 보다 많은 언어로 번역되고, 나아가 게임·영화·TV프로등을 통하여 무한정 대량복제된다. 이것들은 출판물의 국제적 유통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제 2차세계대전후에는 「Readers Digest」와 「Time」 및 「Life」등의 잡지들이 세계시장을 구축하였다. 특히 「Readers Digest」는 오늘날 14개 언어로 41개관이 100여개국가에서 출판되고 있다.<sup>32)</sup> 그리고 서적부문의 경우 앞에서 밝혔듯이 미국보다는 프랑스의 Hachette, 영국의 Longman, 독일의 Bertelsmann 같은 다국적 출판기업의 활동이 현저하다.

### 3. 상부구조

국제커뮤니케이션연구에 있어서 다국적기업의 문화상품 및 미디어산물이 단순한 상품의 유통을 벗어나 문화적·이데올로기적 지배를 행사한다는 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다. 즉 '미국적 생활양식 및 가치관' '자본주의적 가치의 동질화', '제국주의적 허위의식', '상업주의적·소비주의적 가치관' 등으로 표현되는 가치전파가 다국적기업의 문화상품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뉴스보도에 있어서 질적 불균형으로 제기되는 제 3세계에 대한 부정적·비호의적 정형관념은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 후진국의 뉴스는 선진국독자의 취향에 영합하는 전쟁·폭동·천재등에만 국한되고, 후진국의 문화 및 사회의 발전상에 대한 뉴스, 후진국시각에 입각하는 뉴스는 거의 전무하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미국을 비롯한 서구에 대하여 뉴스는 호의적이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조성한다는 결과가 밝혀졌다. D.R. Browne은 미국수출 TV프로에서 미국인들의 화목한 가정생활, 높은 생활수준, 자유와 평등의 사회에 관한 이미지묘사를 밝혀내었으며 T. Delgado는 수출 TV프로의 분석에서 현대사회에 대한 순응주의적·도피적 이미지를 찾아 내었다. 이와 유사하게 E. Santoro는 미국 TV프로들이 아동들에게 백인, 특히 미국인에 대하여 인종주의적 정형관념을 체계적으로 형성시킨다고 지적하였다. 뿐만 아니라 A. Dorfman과 A. Mattelart는 「Donald Duck」을 분석하여 미국인들이 저개발

29) 같은 책, p. 51.

30) 같은 책, p. 54.

31) 같은 책, p. 54.

32) 같은 책, p. 55.

국민들에 대하여 지니는 정형관념을 밝혀내고, 이것이 미국의 대외정책의 목표에 수렴하는 도덕적 기준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하였다.<sup>33)</sup> 이러한 일방적인 이미지왜곡뿐만 아니라, 저발전국의 언론인들이 서구편향적 편집태도와 뉴스가치관을 지니고 있는 것도 큰 문제의 하나이다.<sup>34)</sup> 즉 서구적 이해관계와 시각에 따라 서구의 뉴스기관이 제작·배포한 보도를 수용하거나 모방함에 있어 저발전국 언론의 시각굴절이나 문화적 종속현상을 빚고 있는 것이다.

#### Ⅳ. 종속과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ISA)

국제커뮤니케이션구조에 관한 관심은 NWIO운동과 문화제국주의론 혹은 미디어제국주의론 등의 이론적 쟁점을 불러일으켜 왔다. 이러한 최근의 관심은 분명히 선진자본주의국가가 제3세계국가와 그 문화 및 커뮤니케이션체제에 대한 지배를 확대·강화하고자 하는 경향의 산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많은 연구가 밝혀주고 있듯이 국제커뮤니케이션질서에 관련된 문제는 단순히 정보 및 문화상품의 유통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나아가 보다 광범위한 총체적인 시각에서 생산과 문화적 효과에 관한 이해를 요구하고 있다.

미디어제국주의·문화제국주의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세계체제의 중심국에 초점을 맞추어 자본주의의 발전과 다국적기업의 미디어활동과의 연관성, 그리고 경제적 및 문화적·이데올로기적 차원에서의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재생산에서 미디어가 갖는 역할등을 고려할 때 더욱더 그 정당성을 지녀왔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자본주의생산양식의 팽창에 의한 세계체제—종속구조—하에서 국제커뮤니케이션체제는 이것의 특수한 반영이라는 점과, 그리고 이 상황속에서 미디어 및 커뮤니케이션활동에 의한 이데올로기는 세계적 차원에서의 종속구조와 자본주의 사회내의 생산양식을 재생산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기존의 문화제국주의 또는 미디어제국주의를 다룬 국제커뮤니케이션 연구가 ‘종속’ 개념과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로서의 매스미디어개념을 기본적인 구성요소로서 전제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 1. 종 속

국제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종속이론적 접근은 다국적기업에 의한 문화적·이데올로기적 지배의 측면과 그 메카니즘을 미디어제국주의로 규정함으로써 연구의 분석차원을 자본주의적 세계체제의 영역으로 높였을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지배와 종속의 관계속에서 일방적으로 주변화된 제3세계가 겪었던 식민지시대부터의 역사적 경험들과 연결될 수 있는 가

33) 채백, 앞의 논문, pp. 121-123.

34) P. Golding, 앞의 논문 참조.

능성을 보여주었다. 이에 따라 국제커뮤니케이션연구는 제 3 세계와 관련된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흐름을 종속이론이 규정한 테두리내에서 설정하여 전개되었다.

첫째 문화종속은 자본주의세계체제의 종속관계의 한 특수한 반영으로 간주된다. 커뮤니케이션이론의 근대화확산모델(diffusion model)이 비판되었던 점은 바로 이 종속구조를 전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이리하여 다국적기업의 문화적·이데올로기적 지배는 종속구조를 통하여 제 3 세계의 문화종속을 그대로 발생시키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소위 '이중적 종속'(double dependence) 혹은 '이중적 소외'(double alienation)<sup>35)</sup>가 그것을 표현하고 있다. 이는 경제적 종속관계를 특징짓는 구조가 그대로 문화적·이데올로기적 차원에서도 재현된다는 의미인데, 자본주의세계체제에로의 편입 결과 이에 보편적인 자본주의적 이데올로기에 종속될 뿐만 아니라, 특정 중심부 국가에 의한 지배 결과 특정 이데올로기의 종속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한편에 있어서 제 3 세계의 문화—그것이 '발전' 혹은 '저발전'의 상태에 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가 종속구조의 산물일 뿐이라는 단순 논리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다.

둘째 이 종속구조와 다국적기업의 존재에 대한 강조때문에, 제 3 세계가 단순한 수용자, 즉 어떤 비판적 능력도 지니지 못하는 존재이라는 점을 미디어제국주의론은 가정하고 있다. 미디어제국주의론은 다국적기업에 의하여 전파된 서구의 이데올로기가 중심국과 저발전국의 지배계층의 이익에만 부합되어, 전통문화의 보존, 문화주체성의 유지에 저해되기 때문에, 이 서구적 이데올로기가 자국의 사회구조에 확대되는 것은 종속구조를 영속화시킬 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셋째, 문화적, 이데올로기차원에서 세계체제는 지배와 종속의 관계로 이원화되어 파악된다. 미디어제국주의론은 이 관점을 종속이론의 주변—중심의 착취관계에서 벌어오고 있는데, 이 관계는 국가 및 민족의 차원에서 재생산된다고 하여 서구선진자본주의의 지배계층이 누리는 생활양식, 소비패턴에 따라 저발전국의 일부 계층도 자본주의사회의 상업적 소비주의적 경향에 젖어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양극화된 관계를 기반으로 국제커뮤니케이션연구는 국제간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흐름에 있어 양적 불균형을 실증적으로 밝혀 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불균형은 선진자본주의국가와 주변부국가간의 종속관계가 지닌 역사성에 의하여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는 각각 서구와 미국에 의하여 종속됨을 보여 주고 있다.

네째, 미디어제국주의론은 위와 같이 세계체제론적 시각, 외부적 요인의 강조, 종속관계의 이원화를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는데, 이러한 점은 상대적으로 수용자의 위상을 결정짓는 계급적 존재의 성격을 간과하고 있다. 즉 이는 다국적기업의 문화적 지배가 주변사회에

35) E. Dagnino, "Cultural and Ideological Dependence," in K. Kumar (ed.), *Transnational Enterprises*, (Westview Press, 1980), pp. 508-509.

서 단선적으로 수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 계층 및 수용자의 사회경험과 접합되어 굴절과 변동을 겪는 면을 보고 있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미디어의 수용에 영향을 주는 조건에 대한 연구와, 미디어를 통해 흘러나오는 것들을 해석하는 다양한 양식간의 차이, 그리고 수용자들의 그것에 의한 동화의 수준에 대한 검토가 중요하게 된다고 하겠다. 즉 수용자를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하고 있는 현실을 사회경제적 구조속으로 조명시켜 보아야하는 것이다.

다섯째, 제 3세계의 커뮤니케이션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위치를 미디어제국주의론은 이원화된 분석단위 속에서 수동적인 존재로 간주하고 있다. 주변국가의 입장에서 매스미디어의 함목적적인 이용과 커뮤니케이션분야에 대한 외국의 이해관계가 증대함에 따라 국가지도하의 커뮤니케이션정책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국가의 성격이 단순한 종속국의 의미라기보다는 사회계층들의 이해관계가 조우하는 장소인 만큼, 커뮤니케이션정책은 미디어소유주간의 이해관계의 모순에 따라 변화될 전망이 크다고 하겠다. 그리고 제국주의 중심국의 이데올로기적 침략에 대한 '민족문화의 보존', '문화주체성의 유지'라는 국가적 차원의 커뮤니케이션정책은 민족문화가 지배관계를 반영하는 지배문화와 피지배문화와의 갈등관계에서 표방된 것이라는 사실에서부터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디어제국주의론은 종속이론을 주변사회의 상부구조에 기계적으로 적용한 결과라고 하겠다. 즉 문화 및 이데올로기에 대하여 내적 생산 및 발전에 대한 규명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종속이론을 문화 및 커뮤니케이션의 수준에 투사시킨 반사물이라는 인상이 짙다. 이러한 점은 위에 제기된 특성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제 3세계의 국제관계가 종속적이기 때문에 그 상부구조 역시 종속적이라는 경제결정론적 입장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요컨대 국제커뮤니케이션의 영역에서 문화에 대한 종속이론적 접근이 자본주의세계시장 내에서 미디어제국주의현상에 관한 사례를 실증적으로 보여준 점은 큰 공헌임에 틀림없다. 그렇지만 미디어제국주의에 대한 분석이 경제적 종속구조에 따른 이데올로기적 지배 및 그 종속으로 파악한 수준을 넘어서, 주변사회의 구체적인 사회구성과정속에서 나타나는 계급과 국가의 성격에 연관된 분석이 보다 필요하다고 하겠다.

## 2.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ISA)

커뮤니케이션을 하나의 이데올로기적 현상으로 이해하는 것은, Althusser의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Ideological State Apparatus)개념을 국제커뮤니케이션연구영역에도 적용시켜, 제 3세계의 종속적 성격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이데올로기의 기능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기에 이르고 있다.

Althusser에 따르면 ISA란 국가가 이데올로기를 사용하여 그 사회의 기존 생산관계를 재

생산하는 데 이용되는 기구를 일컫는 개념이다. ISA의 한 목록으로서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은 모든 국민들에게 신문, 라디오, TV등의 매체를 통하여 민주주의, 국수주의, 자유주의, 도덕주의등의 각종 이데올로기를 매일 반복하여 주입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이에 젖어들게 하는 것이다.<sup>36)</sup>

이러한 Althusser의 시각하에서 다국적기업은 자본주의 세계체제내에서 억압적인 지배의에 이데올로기적 지배를 행사하며, 이러한 문화 및 이데올로기는 종속적 관계의 유지 및 재생산의 결정인으로서 중요성을 지닌다는 점이 많은 국제커뮤니케이션연구의 공통적인 특징이다.

선진자본주의사회의 전형적인 소비패턴이나 생활양식은 종속사회에 전파되었을 경우 '국제화된 사회계층'인 지배계급 및 집단에 의하여 공통적으로 향유되며 이에 따라 사회적 불균등의 특징을 심화시킨다. 상품·오락·정보의 소비는 이들 특권집단의 수중에 놓이며, 도시 및 농촌의 일반 대중들은 국내 매스커뮤니케이션체제로부터 배제되는 것이다. 즉 이러한 '배제 및 주변화'의 경향은 외국문화의 영향에 배제되는 부류와, 빈곤으로 인해 최소한의 문화적 권리마저 누리지 못하는 부류의 사회계층을 분리시킨다는 것이다.<sup>37)</sup> 이와 유사하게 시장조사, 광고기술, 신용정책등을 통한 다국적기업에 의하여 소비의 이데올로기(소비주의)는 저소득의 대중을 만족시킬 수 없으므로 전체 소비문화를 분열시키고, 그 돌파구로서 '집합적인 적대감'을 유발시키는 좌절의 과정을 노출시키며, 나아가 종속을 유지·강화시킨다고 I. Sarti는 주장하고 있다.<sup>38)</sup> 뿐만 아니라 R. Salinas와 L. Paldán에 의하면 중심국의 지배는 ① 국내 및 국외 엘리트들이 채택하고 있는 발전모델에 기능적인 것들을 육성하여 동화시키고, ② 지배적인 문화적·이데올로기적 패턴에 동화될 수 없거나 불필요한 것은 소멸시키며, ③ 새로운 형태의 지배에 대항하여 저항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접촉할 기회를 봉쇄시키고, ④ 지배 그 자체에 의해 형성된 현실에 상응하는 새로운 문화적 표현양식을 창조한다.<sup>39)</sup> 결국 이는 문화적 동질화(cultural homogeneity) 추세이며, 자본주의세계체제를 유지하며,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이데올로기는 중심국에 의하여 세계적 지배과정을 수행하는 기능으로서 여겨지고 있으며, 다국적기업과 그 미디어는 이에 강력하며, 상당히 자율적인 역할을 행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국가(중심국 : 미국)는 실제적인 역할자로서 분석단위로 설정되어 왔으며, 이데올로기는 경제적 토대의 반영이라는 측면보다는 종속적 자본주의 생산관계의 재생산의

36) L. Althusser, *Lenin and Philosophy and Other Essay*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1977), pp.141-154 참조.

37) R. Salinas and L. Paldán, 앞의 논문, pp.279-280.

38) I. Sarti, "Communication and Cultural dependency," in E.G. McAnany, J. Schnitman & N. Janus (eds.) *Communication and Social Structure* (New York; Praeger, 1981), p. 322.

39) R. Salinas and L. Paldán, 앞의 논문, p. 280.

측면이 강조되어 왔다. 이는 이데올로기의 '상대적 자율성'이 제시되는 것은 자본주의 국가의 지배가 결정적으로 경제적 토대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을 뿐더러, 억압적(repressive) 국가기구외에 이데올로기적 지배를 필요로 하는 이유에서이다. 그리고 Althusser가 밝히듯이 이 이데올로기는 실제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인 지배이데올로기이므로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는 사실상 지배이데올로기의 중계, 따라서 문화적·이데올로기적 지배의 역할을 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이데올로기 혹은 미디어의 위상이 갖는 의미가 독립적이며, 자율적이라기 보다는 상대적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하겠다. 즉 Althusser의 경제·정치, 이데올로기의 계수준에 있어서 계수준의 상호관계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경제적 토대이며, 이점에서 출발하여 Balibar등에 의한 사회구성체개념이 정립되고, 제3세계의 분석에 있어 상이한 생산양식의 존재에 기반을 두는 주변부사회구성체론이 전개되고 있는 만큼, 종속사회에 있어서 이데올로기 및 문화에 대한 분석은 생산양식의 기본관계인 계급관계에 대한 인식을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비해 중층적구조에 의한 이데올로기는 그 자율성이 상대적인 것만큼이나, 계급적 관점과 상대적으로 무관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데올로기는 어떤 특정 역사적 시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사회에 있어서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ISA에서는 개별적이며,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이데올로기의 존재를 함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계급적 관점의 도입은 이데올로기의 내용과 형태를 결정하는 대립적 계급관계 속에 나타난 매스미디어의 현실적인 존재양식과 그 실행과정을 분석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 V. 결 론

지금까지 현 국제간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논의와, 그 기본가정들을 살펴보았다. 많은 연구가 보여주고 있듯이 현존 국제커뮤니케이션체제는 선진자본주의의 세계지배와 이에 따른 전반적인 종속구조하에서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는 선진자본주의의 이데올로기를 전파하고, 문화종속을 통하여 현재의 착취적 구조를 영속화시키려는 '신식민주의'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출발하는 미디어제국주의론은 외부적 상황요인으로서 종속구조와, 매스미디어의 역할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라는 두가지 개념을 전제하고 있다. 이는 종속이론과 Althusser의 이데올로기론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이러한 일반이론들은 각각 부등가교환체제로서의 세계체제와, 자본주의생산관계의 재생산기능을 하는 이데올로기라는 두 전제를 국제커뮤니케이션연구에 제공함으로써 미디어제국주의에 대한 구



체적인 사실축적과 이론화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던 것이다. 주변—중심의 세계체제는 주변 사회에 다국적기업의 미디어산업의 지배를 명확히 설명하고 있으며, 그리고 매스미디어에 의한 지배이데올로기는 국제 및 국내차원에서 지배—피지배관계를 유지·강화함으로써 생산관계의 갈등을 해소시켜 나간다.

그렇지만 주변사회에서 다국적기업의 이데올로기지배는 단순한 가치전파 및 이식이라는 일반성을 넘어서는 특수성을 지닌다. 다국적기업을 유일한 결정 요인으로서 설정하는 것은 주변사회의 사회구성체(social formation)에 대한 역사적 특수성을 간과할 위험이 있다. 다국적기업의 문화적 지배과정이 지니는 특수성은 주변사회의 계급들이 지닌 특수한 사회적 경험과 선진국으로부터 전파되는 문화적 가치와의 접합(articulation)에 의하여 결정된다. 전통적 가치의 파괴, 자본주의적 문화의 동질화경향을 보이는 미디어의 이데올로기적 기능은 근본적으로 계급모순이 심화되는 한 표현이다. 선진자본주의의 지배계층과 유사한 생활양식, 소비패턴등의 문화적 가치에 노출·수용되는 과정은 주변사회의 객관적 조건, 즉 대외적 종속관계, 계급구성과 분열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보여줄 수도 있다. 달리 말하자면 주변사회에서 지배이데올로기는 그것이 다국적기업에 의한 것이거나, 혹은 국가의 매스컴 정책에 의한 것이거나 결코 단선적이지는 않다는 것이다. 메세지의 수용에 영향을 주는 객관적 조건, 그리고 그것에 의한 해석과 동화의 수준은 다양한 경험세계를 지닌 수용자들에게 상이한 의미체계를 형성시킨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기존의 미디어제국주의론은 다국적기업에 의한 이데올로기적 지배—그 부정적인 표현으로서 문화종속을 가정한다고 하더라도—의 측면에 대하여 단선적이며, 기능적인 시각을 펼치고 있다. 미디어제국주의론이 발전론적 시각에 입각한 근대화확산모델에서 제기된 커뮤니케이션미디어의 기능에 대한 시각과 다른 점은 단지 그 기능을 부정적인 측면, 혹은 긍정적인 측면으로 간주하였느냐의 문제일뿐이다. 국제적 차원, 그리고 국내적 차원에서 미디어의 위상을 결정하는 문제는 다국적기업, 매스커뮤니케이션체제, 매체, 수용자등에 대한 객관적인 조건을 형성하는 사회계급의 구조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하여야 할 것이다.